

전 남

나주·함평 야생차 풍부한 유전변이 보유

신품종 개발 가능성 크다

산림과학원 유전자원 분석... 품종개발 첫걸음

국내 야생 차나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유전자원 조사와 분석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국립산림과학원 양병훈 박사는 28일 나주시에서 열린 '야생차나무 유전자원의 유전다양성 및 유연관계 규명' 연구발표회를 통해 국내 자생지 38곳에서 채취한 차나무의 유전변이 내용 등을 공개했다.

차 재배가 농가의 중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대부분 품종이 야생상태의 재래종(44%)이나 일본 수입품종 '야부기다'(20%) 등으로 독자적인 품종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1년여에 걸친 이번 조사는 국내 야생 차나무의 유전 다양성을 DNA검사를 통해 수치화함으로써 야생차의 유전 자원 보호와 체계적 관리 등에 첫 단추를 끼웠다는데 의의가 있다.

조사결과 나주가 9곳 자생지 가운데 청립산·가야산 등 2곳의 야생차 유전변이가 0.437과 0.420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전체 평균은 0.343이며 0.4가 넘는 지역은 나주의 청립산과 가야산을 비롯해 함평, 경남 김해, 밀양 등 5곳으로 조사됐다. 유전변이 값이 높다는 것은 다양한 형질을 보유하고 있어 새로운

품종개발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양 박사는 설명했다.

또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규약에 따라 외국품종 사용에 따른 사용료와 재산권 분쟁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수 고유의 품종 개발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전구조 분석에서도 자생지 사이에 확연한 유전적 차이(13.3%)를 보였으며 유전적 근연관계 분석에서 나주·함평·김해 등 9개 그룹으로 뚜렷하게 구분됐다.

양 박사는 야생 차나무의 유전자원 보존과 선발을 위해 이들 9개 지역의 자생지를 고루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지역은 나주 등 전남 6곳, 전북 부안, 익산, 경남

김해, 사천, 고성, 밀양, 기장군 등 13개 시군이다.

국내 녹차 음료시장 매출은 2천150억원 규모이며 전통차까지 포함하면 4천500억원대로 웰빙붐을 타고 규모가 커지고 있다. 또 전국의 차나무 재배면적은 3천800ha, 생산량은 3천800t, 재배농가는 4천423가구에 이른다.

동백나무과인 차나무는 떫은맛을 내는 카테킨(catechin), 카페인, 타닌, 비타민 A.C, 무기염류 등을 함유하고 있고 특히 카테킨은 항산화, 항바이러스, 해독, 노화억제, 혈당 강하, 중금속 제거 등에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엄마랑 나랑 봉숭아 물들이기

전남도 농업박물관 8월 한달간 체험행사

봉숭아 물들이기 체험행사가 8월 한 달간 전남도 농업박물관에서 열린다.

전남도 농업박물관(관장 강석오)은 박물관내 모정에서 가족단위 체험객을 대상으로 봉숭아 물들이기 체험행사를 실시한다.

농업박물관은 외래 화장품이 보급된 이후 잊혀져간 고유 전통미의 풍습을 재현해 도시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99년부터 매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 행사를 마련해 왔다. <사진>

농업박물관은 봉숭아 물들이기를 좀더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유래에 대한 안내 패널을 행사장에 내걸어 참가자들이 손쉽게 봉숭아 꽃을 따서 여러 가지 재료와 함께 절구에 넣고 찌며 직접 물들이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손톱에 봉숭아 물이 묻는 풍습은 붉은 꽃색이 악귀를 물리친다는 뜻이 담겨 있어 악귀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소박한 여인들의 민간신앙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문의(061-462-2796)

/영남=이상휴기자 lsh@

광양항 물동량 처리 원활해질 듯

표 주요항구 순회항로 잇따라 개설

광양항과 아시아 주요 항구를 연결하는 신규 항로가 잇따라 개설됨에 따라 하반기 물동량 처리가 한결 원활해질 전망이다.

28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따르면 덴마크 선사인 MCC Transport사가 오는 31일부터 광양항~도쿄~오사카~부산신항을 오가는 한·일 항로를 새로 개설, 운항을 시작했다. 이번

판중팔레트스~싱가포르~인도네시아 자카르타~홍콩~대만 가오슝~부산 순회하는 아시아 항로를 신규로 개설, 운항에 들어간다.

또 국내 최대 선사인 한진해운이 다음달 2일부터 광양항~도쿄~오사카~부산신항을 오가는 한·일 항로를 새로 개설, 운항을 시작했다. 이번

항로 개설로 광양항의 아시아 정기항로는 주 43 항차에서 45 항차로 늘어나게 됐다. 1 항차는 일주일 기준 배가 1척 임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컨테이너부두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잇따른 신규 항로 개설은 화주와 연계한 선사 유치, 선사와 화주와의 파트너십 강화 등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이 결실을 거둔 결과"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백일홍 만개 관광객 유혹

담양군 봉산면에서 고서면으로 이어지는 지방도 8km 구간에 배롱나무 붉은 꽃이 만개했다. 배롱나무는 100일 동안 3차례에 걸쳐 꽃이 핀다고 하여 백일홍이라고도 불린다. <담양군 제공>

함평 농업인 "나도 CEO"

해남 가학산 휴양림 새단장

나미새긴 명함 갖기 운동

함평군 농업인들이 나미를 새긴 명함 갖기 운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함평군의 작목별 농업단체, 학습단체, 시범사업 농가 등에서 지난달부터 농산물 설명회를 실시하기 위해 나미 문양과 큰 브랜드 슬로건 등에 농가의 주력 농산물 사진을 부착한 명함을 제작, 사용하고 있다.

명함 갖기 운동은 함평군이 운영하는 '함평군 농업대학' 수강생들이 필요성

을 제기함에 따라 시작돼 농업 관련 학습단체 회원과 동호회원 등이 함께하면서 현재 1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농업인들이 스스로 생산한 농·특산물을 함께 이름 석 자를 새김으로써 책임감도 강해지고 우수한 품질의 농·특산물 생산에 더욱 매진하고자 자발적으로 나섰다.

농업인 김보연씨는 "농업인 각자가 CEO(최고경영자) 마인드를 갖고 생산에서 유통까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명함 갖기 운동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희기자 hwang@

향토집·수영장 등 갖춰

해남 가학산 자연 휴양림이 개장 10주년을 맞아 산뜻하게 정비됐다.

해남군은 23.1~39.6m 규모의 '숲속의 집' 13채 가운데 11채를 자연친화적인 향토 벽돌집으로 리모델링했으며, 물이 부족한 휴양림에 사방 담수 시설을 설치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영장을 만들었다.

또 야생으로 살다 포획된 원숭이 '해남이' 가족과 공작을 관람할 수 있는 학습용 조류판도 설치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휴양림 내에는 데크시설과 돌계단도 곳곳에 만들어 편안하게 산책을 즐기며 만도록 했으며 주차장과 야영장을 연결하는 목교는 멋스러움과 함께 편리성도 갖췄다.

가학산 자연휴양림은 모두 13채의 산막과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을 갖췄으며 다음달 말까지 주말 100%, 평일에는 70%가 예약 완료됐다. 산막 이용료는 5만~6만원이며, 예약문의(061-535-4812).

/해남=박희석기자 dia@

정남진 물축제 은어조형물 눈길

장흥군이 '정남진 물축제'에 앞서 최근 탐진강 무지개다리(장흥교)에 은어 조형물을 설치해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무지개다리에 가로 1.2m, 세로 12m의 규모로 설치된 은어 조형물은 장흥 출신 조형작가인 천현호의 작품으로 장흥교 물살을 힘차게 타고 오르는 탐진강 은어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했다. <사진>

장흥군 관계자는 "은어 조형물을 통해 장흥군을 찾은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청정 장흥의 이미지와 지역의 대표적 관광자원을 탐진강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 2회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탐진강 일원에서 개최된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여수·서여수 우체국 통합

전남 체신청 내달 3일부터

여수시내 2개 총괄국인 여수우체국과 서여수우체국이 여수우체국으로 통합된다.

전남 체신청은 28일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계획에 따라 동일시내 2개 총괄국 통합추진이 실시돼 총괄국 업무를 맡던 여수우체국과 서여수우체국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통합되는 여수우체국은 다음달 3일 서여수우체국 청사로 이전하고 기존 여수우체국 청사는 여수 동문동 우체국으로 바뀐다.

'4급 우체국 하부조직 개편' 시범국으로 지정된 여수우체국은 기존 3과 5실에서 5과 1실로 조정되며 청사여건 등을 감안해 물류센터 증축 전까지 소포영업과 우편물류센터는 기존 여수우체국 청사에서 별도로 운영한다. /광림성기자 kps@

Larg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매. It features a central logo with 'Km' and '2009년 7월 29일' and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Gyeongsang, Jeolla, and Chungcheong. The a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공인중개사: 강영희' and 'H.P 010-4608-3700'. It also contains a table of land parcel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and price.